

2024 WINTER 겨울
한울타리



'25 겨울호 목차

권두언 - 세가지 손	이영길 목사	1
예배예술위원회	김대식 장로	2
쉐마행사위원회	최학수 집사	3
홍보 위원회/역사편찬 위원회	이혜승 장로	4
교인 3 부 위원회	이재익 집사	5
English/Bilingual Ministry	Elder Heather Lee	6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최현구 장로	8
해바라기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9
Ransom 중고등부	정은택 전도사	11
부부청년부	김호영/박영룡 집사	13
* 박기춘 권사 천국 환송예배 기도문	윤만강 권사	15
* 교인동정	조은일 협동목사	17
여성사역위원회	김한나 장로	18
여성회	이소은 집사	20
남선교회	최현구 장로	21
상록기도회	윤만강 권사	22
*칭찬합니다 :	익명의 제보자들	24
섬김의 교과서 곽서영 집사		
*선교지에서 날아온 소식 -칠레	황신재 정승신 선교사	26
이집트	박노아 선교사	29
은퇴장로 기도회	김문소 은퇴장로	30
* 리포트형식이 아닌 글들		

권두언- 세 가지 손

이영길 담임목사

올해 저희 교회 표어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손이 늘 수고를 하게 될 줄 압니다. 물론 기도를 위해 두 손을 모아야 하고 때로는 섬기기 위해 두 손을 열심히 사용해야 하고,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때로는 이웃과 손을 맞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항목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쩌면 우리들의 두 손이 열심히 수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손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수 있을까요? 한 가지 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번째 손은 무슨 손일까요?

‘겸 손’

세번째 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두 손의 수고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두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겸 손’으로 싸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실까요?

‘겸손’의 시인 나태주 시인의 ‘새해 인사’의 마지막 두 연을 나눕니다.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수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덩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세 가지 손으로 한 해를 뜨겁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장로
부 위원장 김경태 집사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며, 교회는 다양한 예배와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월의 특별 예배

- **10 월 13 일(주일):** 청년부 헌신예배에서 조은아 교수님의 설교가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 **10 월 20 일(주일):**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며 박수진 교수님의 초청 설교가 있었습니다.
- **10 월 26 일(토):** 고 이상구 권사의 추모예배로 고인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월 부터 **김경태 집사**가 부위원장으로 1 부 예배 준비를, **김명업 집사와 한보라 집사**가 2 부 예배 준비를 맡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1 월과 12 월의 은혜로운 시간들

1. **11 월 16 일 (토):** 찬양팀에서 준비한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이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2. **11 월 24 일(주일):**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 71 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3. **12 월 7 일(토):** 제직회와 총회에 많은 제직분들이 참여했습니다.
4. **12 월 8 일(주일):** Patricia Batten 목사님의 초청 설교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송년 행사

- **12 월 22 일(주일):** 성탄주일 예배에서는 성만찬과 세례식이 진행되었으며, 유아 세례자(김리아, 김서하, 송지훈, Bradley & Bennett Gage)와 성인 세례자(이현정)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 **12 월 24 일(화):** 성탄 이브 예배에서 유초등부와 유스그룹의 공연과 찬양대의 특별 찬양 ‘기적으로의 초대’가 성탄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 **12 월 29 일(주일):** 송년주일 예배.
- **12월 31일(화)~1월 1일(수):**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쉐마행사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부위원장 최학수 집사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 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 월 쉐마의 밤은 “새가족 환영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께 인사들 드렸습니다. 새교우들과 기존교우들의 개별적 교류를 통해 성도간의 깊은 나눔 및 교제를 이어가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온교유가 함께 마련한 풍성하게 차려진 추수감사 음식을 나누며 일년간 감사와 소명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정은택-박예원 전도사님께서 재치와 유머를 담아 새교우들의 감사 메들리를 전해 주셨고, 상록기도회와 남선교회가 교육 2 부에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어른들의 정성과 사랑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길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쉐마의 밤은 앞으로도 “3 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해승 장로
부위원장 배광현 집사

1. 2025 년 사순절 묵상집 원고 모집 (원고마감 2/5/2025; 발간 예정 3/1/2025)

올해 사순절 묵상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2025 년 달력 배부 진행중

지난번 주문했던 2025년 달력이 배달완료가 되어 현재 교우분들께 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픽업 못하신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Annual Renewal - Smugmug 교회 사진첩 웹사이트

4. 쉼마의 밤 홍보영상 제작 및 유포(11/24/2024)

11월 쉼마의 밤 홍보를 위한 짧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5. 홍보 출판 위원회/ 역사 편찬 위원회에서는 함께 일할 일꾼을 모집중입니다. (문의: 이해승 장로 - epiyodler@hotmail.com)

현재까지 2~3분정도 편집위원과 웹사이트 관리자 등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신 담당자와 영상 편집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진행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인 3 부 위원회

위원장 한문수 장로
부위원장 이재익 집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라디아서 6:2)’를 표어로 했던 2024 년 마지막 달 12 월에 우리 교육 3 부는 반별로 돌아가며 매주 2 부 예배 다과를 준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3 부원들이 한 번도 해 보지 않아 익숙치 않았던 다과준비였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랜기간 이름없이 빛도 없이 우리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셨던 소중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그 고마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2 월 22 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성경공부반끼리 대항하는 ‘성경퀴즈’를 진행하였는데, 퀴즈 형식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스피드퀴즈로 하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반들이 풍부한 성경지식, 오랜기간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다져진 팀웍, 그리고 재치와 순발력을 바탕으로 박빙의 승부를 치루었으나, 남다른 호흡을 자랑한 박신영 장로님과 김영순 권사님의 맹활약으로 안드레반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 교회 소그룹들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40 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 3 부는 킹덤 라이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야기식 성경공부반과 강의식 성경공부반이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재익 집사(goodrct@hot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Bilingual Ministry

Elder Heather Lee

This year has truly been a time of growth for the English Worship Service (EM) group. Several important developments have contributed to this growth,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1. **Consistent Worship Services**

Holding worship services every Sunday has fostered consistent participation and helped the congregation grow both in size and in community.

2. **Improved Worship Environment**

Moving to the ECC community hall, which offers more space and seating,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worship environment.

3. **Growing Congregation**

We now have about 20-30 worshipers attending regularly each Sunday. Our congregation primarily includes college students and young married couples with small children, but it is not limited to this group. We also welcome church officers, parents who wish to worship with their English-speaking children, and a good number of attendees in their 50s and 60s.

4. **Formation of a Praise Team**

We transitioned from a single praise leader to a full praise team, which now includes two guitarists, a keyboardist, and a drummer, enriching the worship experience.

Beyond these physical changes, an even more significant shift has occurred in the perception of the English Ministry within the broader KCB congregation. Worshipers now come from various parts of the church, drawn by the English sermons and the worship style, regardless of their age or background.

Challenges and Looking Ahead

As we continue to grow, two key challenges lie ahead:

1. Securing consistent pastoral leadership
2. Finding a larger space to accommodate our expanding congregation

However, even facing these challenges is a testimony to God's faithfulness. Just a year ago, we were praying simply for more worshipers, and now we are praying and planning for future growth.

We look forward to 2025 and beyond with excitement, trusting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and challenge us as we seek to serve Him faithfully.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최현구 장로

2024 년도 네 번째 **찬양과 기도의 밤**이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11 월 16 일 토요일 오후 6 시 30 분에 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참 예배자’라는 제목의 이영길 목사님 말씀까지, 참석한 모든 분들이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한 찬양팀, 방송실에서 도움 주신 김영돈 집사님, 예배 후 친교를 위해 다과를 준비해주신 김연희, 김희현 집사님, 그리고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주신 윤경문 목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5 년도에도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바라기 유초등부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추운 겨울날을 잘 보내기 위해 동면에 들어서고 식량을 모아두는 동물들의 월동준비와 같이, 선플라워도 이처럼 추운 겨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작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Fire Drill 이었습니다. 10 월 첫 주에 건물관리위원회 최학수 집사님의 지도 하에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년 실시하듯이 선플라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사분들과 함께 시행할 수 있음에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선플라워도 매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VBS 활동 중 하나였던 초등부 아이들 미니 운동회를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하며, 10 월 중순에 초등부 야외 가을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교회 야외예배에서 운동회를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주에는 전교인 탁구대회가 있어서 선플라워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른들과 함께 즐기며 하나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1 월 그리고 12 월에는 아이들과 활기차게 주일을 보내며 서서히 대강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는 부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신 크래프트를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모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중하게 만들며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월의 첫 주를 촛불 하나를 키고 아이들과 대강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시작했는데, 촛불이 전부 켜지기를 기대하는 어린아이들의 마음 속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12 월 둘째 주에는 특별히 선플라워 교사 만찬을 가지며 선생님들의 봉사과 섬김



그리고 조건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사랑의 식탁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브예배에 어린아이들이 열심으로 준비한 발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큰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겨울을 생각하며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남은 것은 감사뿐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성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이뤄지는 선플라워 사역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선플라워 어린이들의 마음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심어가고 있습니다. 심으시는 분도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할 수 있음은 그 자체로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그분이 허락하시는 사랑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나의 영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계신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섬김으로 선플라워와 늘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너무나 수고하시는 심진희 부장 집사님, 정혜윤 부감 선생님, 박영애 부감 집사님, 그리고 박재미 찬양팀장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플라워라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Ransom Youth Group

정은택 전도사

안녕하세요. 유스그룹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알찬 일정들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10 월에는 1 박 2 일 동안 진행된 Lock-in 을 통해 아이들이 신나게 놀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간 친밀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섬겨주신 덕분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저녁 집회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로운 교제의 순간을 누렸습니다. 중고등학생 시기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도를 받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번 Lock-in 을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섬기는 입장에서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Lock-in 저녁식사 후 부모님의 축복기도 시간]



[2024-2025 제자 훈련반 친구들]

11 월부터는 새롭게 시작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한 주 동안 읽어온 성경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신앙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지식과 아이들의 질문들에 대해 다루며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이 던지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보며 놀라고, 저 역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운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길 바라며, 또한 교제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월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유스그룹도 특별한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악기 연주와 찬양으로 교회 음악회에 참여하며 예배자로서 교회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겠지만, 아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행사에 예배자로서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받아들여주고, 기꺼이 함께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 이브 당일에 모여, 미리 준비된 여러가지 게임과 활동을 통해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 년에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놀 때는 또 신나게 노는 유스그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유스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청년부

회장 김호영/박영룡 집사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가족에게 부부청년부(부청)에 있었던 아름다운 **고백**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는 감상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부청 안의 작은 고백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길 소망합니다.

1. 11 월 - 부청 헌신 예배, 총회

총회:

1.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자리를 끝내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2. 섬길 사람이 없다고 걱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청을 모를 때에도 부청을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청을 그리고 보스톤한인교회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2. 12 월 - 은하 항암과 골수이식 치료 & 100 일, 새가족 환영회, 김원주/박윤희 가정 득녀, 송별회, 연말파티

은하를 위한 기도:

12/10 부터 항암과 골수이식 치료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순간순간이 되길.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은하 가정:

부청 여러분~ 오늘 준비해 주신 선물들 잘 받았습니다. 이미 기도와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하는 수술, 항암, 이식 모두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에요. 무사히 회복하면 한 달 정도 후(1/10)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부청분들... 교회에서 다시 뵈려면 내년 후반기는 될 것 같지만 종종 소식 전해드릴게요.

새가족 환영회:

1) 남편과 함께 신앙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부처 공동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 외교부에는 외무고시 합격한 40 명 중, 연수 과정에서 3 명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수 중 친해진 크리스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정리한 노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예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형은 최종적으로 탈락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앙은 깊지 않지만, 함께 예수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유도분만 하는 데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처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분만은 거의 20 분 만에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도와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위치랑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송별회:

보스턴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뉴저지에 놀러 오신다면 같이 맛있는 밥 먹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이니라.” (엡 1:23)



박기춘 권사 천국 환송예배 기도문

윤만강 권사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한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박기춘 권사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고 이제 천국에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족들과 또 많은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수 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넉넉히 이기도록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로우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권사님이 평소에 늘 고백하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의 생명이 다 하도록 순례자의 길을, 한 이민자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좋은 우리 아버지,

권사님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뿌려진 수 많은 수고와 사랑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권사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은혜씨 온 가족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그리움에 가득찬 저들의 심령에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권사님이 자랑하고 사랑하셨던

귀한 손자들 승표, 정표를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머니의 기도와 소원대로
멋있고 늠름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엄마, 할머니를, 또 권사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즐거운
대화도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수 강가에서
금 거문고에 맞춰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토록 함께 주 안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and thank you.

Through the Cross of your son Jesus Christ, you give us forgiveness and freedom
from our sins.

Through His resurrection, you give us also resurrection of our body and
everlasting Life.

Lord,

Give 권사님's loving family your heavenly comfort, peace and hope in you.

Father,

Bless them abundan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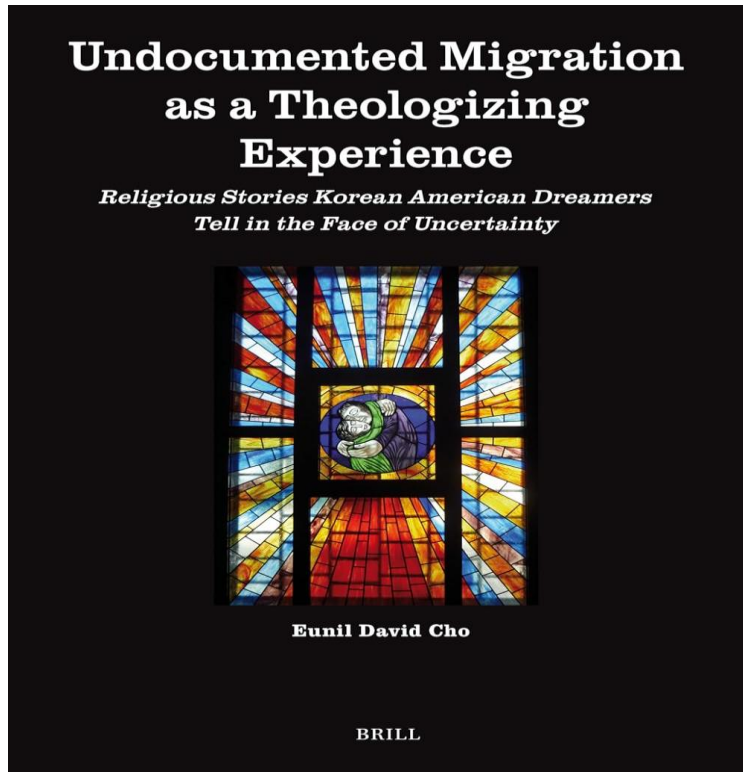
성 삼위 일체 하나님,

천국에서 권사님과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인동정

In *Undocumented Migration as a Theologizing Experience*, Eunil David Cho examines how Korean American undocumented young adults tell religious stories to cope with the violence of uncertainty and construct new meanings for themselve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guided by narrative inquiry, the book follows the stories of ten Korean American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recipients who have found their lives in limbo. While many experience narrative foreclosure, believing "My story is over," Cho highlights how telling religious stories enables them to imagine and create new stories for themselves not as shunned outsiders, but as beloved children of God.



[조은일 협동목사 신간 출판 책자]

여성사역 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지난 11 월 당회에서는 ‘여성사역위원회’를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에스더/부청 여성, 마리아 여성회와 권사회가 협력을 하고, 상록기도회의 여성회원들의 동역을 통해, 앞으로 더욱 건강한 KCB 의 여성 성도님들의 활기찬 사역을 꾸려 볼려합니다. 요즘 타교회에서는 여성회의 존재가 희미하다 못해 없어지고 있고, 대신 여성사역위원회가 있어 성인 교인의 50%에 해당하는 여성 성도들의 활동과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여성 성도들의 흠어져 있는 열성의 불꽃을 모으고,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지체의 일부로 협력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성사역위원회의 사역을 위한 첫모임을 지난 12 월 4 일, 교회 parlor 에서 총 8 명의 회원들과 갖고, 대략적인 사역안 개요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회의 사역을 부서별로 편성하여 조직적으로 진행할려 합니다. 기존의 사역을 당회 위원회, 집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흠어져 있는 회원들을 모아 협력하는 지체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1, 위원: 예전의 에스더/부청 여성회, 마리아 여성회, 권사회, 상록기도회 여성, 여성 당회원, 여성교역자/사모/여전도사

2.

부서	할 일	당회 위원회 협력
*친교 봉사부	교회 친교 담당원/공동체 sign-up & training, 비품 공급...	
선교부	Homeless shelter 방문을 위한 계획, 준비...	국내/해외 선교위 소속
특.활.부 (특별활동부)	여성 교육을 담당-성경공부, 조직 교육 대외 조직에 참여 활동- 동북대회/전국연합회/총회 여성/노년 건강 교육	교육 3 위
정평환	정평환 계획 활동 참여- 환경미화, Recycle,...	정평환위 소속 집사회
홍보출판부	홍.출위의 기사 협조	홍보출판위 소속
경로봉사부	상록기도회 봉사...	

중보 기도부	중보기도 모임 인도, 참여	기존 여성 + 상록기도회원 중심
의료봉사부	교회 의료 비품 정리, 제공 집사회 의료부 협조 - 교인의료 봉사	집사회 협조
경.조.부	경사 /상가 음식봉사	집사회 협조
여성 목회자/ 전도사 + 사모	교육, 중보기도...	

*친교 봉사부: 1 부 예배 친교 봉사 담당: 마리아 여성회 & 권사회

2 부 예배 친교 봉사 담당: 구역별, 부청, 청년부, 남선교회 등의 공동체
친교 다과: 교인들의 자원 sign-up

3. 친교 봉사 - 각 구역별로 매달 봉사

4. 집사회에 적극적인 참여- 집사회장 당회 참여 기회?

5. 구성원 공동체

1) 마리아 여성회 :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 + 부원

2) 부청 여성회: 회장, 부회장 + 부원

3) 권사회: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 + 부원

4) 상록기도회: 각 부서 원

5) 여성목회자, 사모, 여전도사

*** 5 개의 위원 공동체는 각각 부서의 부원을 갖고, 각 부서의 부원들은 건설적인 대화 (Communication)와 상호의 친교를 통해 원활한 동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기존의 마리아 여성회와 권사회는 이번 12 월 총회를 통하여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를 선출하시고, 새로 구성된 부서에 부원들을 영입하셔서 동역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기쁘게 열심을 다하는 여성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성사역위원회 산하 마리아 여성회

회장 이소은 집사

마리아 여성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 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절 1 부 다과떡을 함께 떼었습니다. 12 월에는 우리교회의 일꾼들의 모임인 당회의 식사를 준비했고 더불어 청년부에게도 점심식사를 섬김으로 유학이나 타주에서 와서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우리교회의 큰 나무가 될 청년부 성도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마리아 여성회가 2024 년에 시작한 교제의 장인 여성회 마지막 친교식사모임을 커뮤니티 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직장과 가정 그리고 육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친교의 시간을 가져서 감사했습니다. 마리아 여성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임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년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여성회의 작은 부흥의 바람이 불었고 2025 년에도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함은 다음과 같이 훌륭한 임원들이 뽑혔기때문입니다.

2025 년 새로운 임원단 소개합니다.

회장: 곽서영 집사님, 부회장: 노윤경 집사님,

총무: 오주경 집사님, 회계: 이성희 집사님, 서기: 박선희 집사님.

한 해동안 충성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남선교회

회장 최현구 장로

남선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봄에는 선교기금 마련, 가을에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올 가을 골프대회는 10 월 12 일 토요일에 Bridgewater 에 있는 Olde Scotland Links 에서 열렸습니다. 골프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주최측으로부터 경기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동하여 기념촬영을 한 후 임원진에서 주문하여 준비한 물과 김밥을 나누어 받고, 편성된 조에 맞춰 순서대로 티오프를 하며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특별히 청·백으로 나누어 조를 편성하고 김진기 집사님께서 후원하신 모자를 쓰고 청백전을 치렀고, 여성으로서 참가하신 이정희 권사님, 윤선미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은 KCB LPGA 조(?)에 편성되어 실력을 한껏 뽐내셨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에는 간단한 뒤풀이를 하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골프대회 결산 결과 경비를 제외한 \$3,387.29 의 순수익을 장학기금으로 교회에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따로 헌금해주신 분들, 그리고 기획, 준비와 진행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남선교회 임원단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상록기도회

회장 윤만강 권사

1. 9 월 22 일 월례회에서 4 년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재명 집사님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윤만강 권사가 새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단은 고문:권복태, 서기:주풍실, 회계:공경희, 홍보:이재명, 심방:홍영희 그리고
회장:윤만강이 되겠습니다.

2.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장학기금 모금에 \$500 을 헌금하여 이 일에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3. 10 월 22 일에 이상구 권사님의 장례예배에 화환을 올리고, 또 많은 회원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4. 10 월 27 일에 전교인 탁구 대회에 \$100 을 지원하였고, 권복태, 윤만강이 시합에 참여했으며,
또 여러 회원들이 즐겁게 끝까지 3 세대와 함께 했습니다.

5. 11 월 첫 주부터 매주 1 부 예배 후에 잠깐 다과를 나누며 친교하고 피아노 옆에 모여서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회원들이 찬양으로 주님과 친밀해 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형편따라 피아노 반주를 해 주시는 김선숙 장로님, 이성혜 사모님, 김영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 11 월 17 일 월례회때에 주풍실 권사님께서 온 회원들에게 맛있는 점心和 또 생일축하 cake 과
과일까지 풍성하게 먹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이름도 상록기도회라 하였으니 중보기도에 힘쓰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 상록 기도회 회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 * 회원들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 * 회원들 각자가 신앙이 성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회원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11 월 17 일 월례회 식사중 한 컷]

섬김의 교과서 곽서영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요즘은 어느 단체를 가도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기 힘듭니다. Give and take 식의 무늬만 봉사인 활동들이 판을 칩니다. 나에게 전혀 이득이 오지 않는, 온전히 남을 위한 봉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마도 요즘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아이들 학교를 가나, 시니어 센터를 가나, 병원이나 타운의 이벤트엘 가나 진정으로 봉사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이웃의 봉사는 아마도 봉사의 시대를 살아왔던 친절이 몸에 베어있는 시니어 분들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사실 이 곳 보스톤에 살면서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들 본인 스케줄 소화하기도 벅찬 생활들을 하고 계시 줄 압니다. 늘 교회 봉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지라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흔들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교회 곳곳의 봉사 패턴들도 달라졌고, 그동안 쉬지않고 달리시던 분들이 burn-out 으로 나가 떨어지시면서 교회 곳곳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안타깝지만 점점 더 커져가고 늘어가고 있는 진행중인 구멍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힘든 와중에 그 구멍들을 메꾸고 계시는 여러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 눈에 띄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칭찬하고자 합니다. 바로 섬김의 교과서, 올 해



여성회 회장직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우리 곽서영 집사님 이십니다. 여성회 관련 크고 작은 봉사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부모회, 구역 활동, 성가대 식사까지 여러 잘잘한 구멍들부터 아무도 선뜻 나서지않는 큰 구멍까지 곽 집사님이 메꾸기 시작하시면 크기와 깊이, 갯수에 상관없이 마치

여러명이 단체로 일을 한 것처럼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검손에 검손을 더하시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 손이 절대로 모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편견없이 사람을 대하시니 주변에 늘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따르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시대에 진정으로 상식이 통하는 분이시기도 한 곽 집사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너무나도 일꾼이 부족한 요즈음의 저희 교회 곳곳에 사랑과 감사가 피어나게 됩니다.

늘 얼굴 한 가득 미소로 인사하시며 “안 힘들어요” 를 입에 달고 사시는 곽서영 집사님! 당신의 아낌없이 베푸시는 큰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시길 기도 드립니다.

〈**편집자 주**〉 ‘칭찬합니다’ 코너는 교회 곳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교우님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코너로 칭찬하시는 분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 - 황신재 정승신의 12 월 선교편지

황신재/정승신 선교사, 칠레



안녕하세요

성탄절과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2025 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동역으로 많이 뛰고 만나고 누린 한해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내며 소식을 보내드리겠다던 바램과는 달리 아내는 심한 이석증이 갑자기 찾아와 꼼짝할 수 없었고 저 또한 심한 몸살감기로 앓아누워 저희 부부 모두 떨어진 침대에서 성탄절과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은 못 했지만 이제 다시 칠레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 힘을 내어 짧게나마 저희 가정과 사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내의 건강과 시민권 획득

오랜 치료의 후유증과 허약해진 체질로 인해 대체의학을 찾던 중 주 정부의 의료 혜택에 동양의학(침술)이 포함되면서 아내의 상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때까지 받은 그 어떤 치료보다 도움이 된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신청 후 고박 4 년이 걸렸습니다. 친구이자 이민 변호사인 천일웅장로님의 도움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번 선교지를 오갈 때마다 받았던 이민국의 조사에서 해방된다는 안도감이 큼니다.

막내 아들 선교사 부부가 레바논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작년 10 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급히 요르단으로 피신했던 황성은 /시는 선교사 부부가 다시 레바논으로 복귀했습니다. 함께 피신했던 모든 팀원도 함께 돌아와 레바논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임신 중인 자부와 태아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성별이 딸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아들 부부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7 년 만에 모인 대학 사역자 콘퍼런스

지난 11 월에는 태국의 콘켄 이라는 대학도시에서 대학 사역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모임이 7 여 년 만에 재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여 생기를 불으소서”의 말씀으로 15 개국에서 150 여 명이 각자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칠레에서 두 명의 리더가 함께 참석하여 타국 리더들과 관계와 사역적 연계를 맺는 축복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 년을 돌아보며

2024 년은 팬데믹 이후 바뀐 대학가의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해였습니다. 모든 대학의 정책 변화로 캠퍼스의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데모와 인권운동들이 학사 일정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비례적으로 반영된 학비의 증가는 학생들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했습니다. 2025 년에도 이러한 현상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열심히 발로 뛰며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가를 찾아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학생들을 식탁으로 초청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상담과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번덕스러워진 학사 일정 중에도 주말을 이용해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을 계속했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빵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재정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돈으로 남아공까지 찾아가 선교하는 기적 같은 경험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역으로는 칠레를 벗어나 인근 나라들까지 찾아가 젊은이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역이 늘었습니다.

에필로그

칠레 사역 초기부터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귀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아들 셋을 낳고 이혼 후 아들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늙은 친정엄마를 성심껏 보살펴 왔습니다. 어느 날 90 세 되신 노모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친지와 이웃들이 모였고 예배 후에는 생명을 지탱하던 호흡기를 끊기 위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조차 제한적인 이 여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이 예배가 의미 있는 마침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천국에서의 해후를 소망하자며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후 호흡기를 끊었는데.... 아~니? 맥박이 다시 뛰고, 숨이 골라지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 삶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노모를 지극정성 돌보는 딸의 모습은 제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저는 이번 주간 다시 칠레로 향합니다.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그 포도원을 올 한 해도 제게 맡겨 주시기를 간청하는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누가 13:6-9). “주인이여 올해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 면이거니와....”

그동안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올 한 해도 우리의 예상을 깨는 삶과 사역의 연장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황신재 정승신 (John & Monica) 올림

〈**편집자 주**〉 여러가지 safety reason 으로 인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울타리에 공개 못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선교소식,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비하인드 선교소식이 궁금하시면 해외선교위원회 (박신영 장로/ 김영돈 집사)나 국내선교위원회 (채진병 집사) 에 문의하시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 소식

박노아 선교사, 이집트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난 8 월 제가 요청하여 보스톤한인교회가 모금해주신 \$2375 불을 신학생 둘과 목사님 한분에게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Rev. Hany 와 Andrew 는 ThM 과정과 MDiv 과정 학생입니다. Hany 목사님과 아들은 암치료를 받고 있고 사모님도 당뇨로 고생하고 있어 \$1000 불 (대졸자들의 6-7 개월 급여에 해당)은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Andrew 는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Ayoub 목사님의 아들로 본인도 같은 사고로 다리 수술을 세번이나 받고 장애를 얻었으나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백화점에 데리고 가 청바지와 셔츠를 사줄만큼 어리고 착한 신학생으로 \$1000 불은 그 가족이 아버지를 여의고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ev. Peter 는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끝내갑시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네 장애인들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어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고, 주신 금액의 끝을 마추느라 \$400 을 전달해 주일학교 룸을 만드는데 쓰시라 드렸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연락드린다고 한게 10 월이었는데 Peter 목사님 만나는 게 늦어져 이제야 보고 올립니다. 또 제가 이번 학기 좀 얹아 누울만큼 몇 주 고생도 하고 여러가지로 정리해 연락드리는데 늦었습니다. 추가로 Connection Letter 에 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한 내용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도움받은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월드미션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단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reduction in force 가 진행 중이라 미장로교 200 년 해외선교가 기울고 있다는 안타까운 느낌을 받습니다. 연락 받는대로 여러분들께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Noah PARK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in Cairo, Egypt

은퇴장로 기도회

김문소 은퇴장로

KCB 은퇴장로 기도회의 목적은 교우를 위한 기도와 문안 전화 및 2,3,4,세를 위한 기도이며, 모임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 오후 7 시에 줌 Zoom 으로 모입니다. 참여 회원은 권복태, 김문소, 김형범, 박영철, 윤원길, 조준호, 최연일 이상 7 명이고, 김성빈, 김영경, 변화경, 홍경자 이상 4 분은 여러 사정으로 불참하고 있습니다. 현 중보기도자는 김성한 장로, 김현지 권사, 신영각 집사, 엄인숙 집사, 이상자 권사, 조만연 장로, 양정애 교우, 정능화 권사, 김은하 (Stella) 아기 이상 9 명입니다. 기도회의 순서는 사회자가 전 회의록 낭독에 이어 기도와 간증, 중보기도자 updates,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전쟁 피해자를 위한 기도, 미국내 총기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다음 모임 날짜, 회원 근황,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폐회합니다.

2024 년 월별 간증 요약과 회원 근황:

***1 월:** 최연일 장로의 중보 기도후 간증은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 영화 ‘벤허’(1959)는 남북전쟁때 Union Army 의 장군이며 반노예제도 정치인이었던 Lew Wallace 의 원작 소설 “Ben-Hur: A Tale of the Christ” (1880)에 기반한다. 이는 노예제도의 비참함을 고발하고 세상에 알렸던 소설 “Uncle Tom’s Cabin” (1852 Harriet B. Stowe)의 Million Seller 기록을 깨고, “Gone with the Wind” (1936 Margaret Mitchell)가 출판될 때까지 50 여년 동안 Bestseller 1 위를 지켰던 작품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유대인 귀족 벤허가 어릴 때 절친한 친구였던 메살라와가 로마군의 호민관으로 돌아오면서 그와의 갈등으로 시작된다. 로마의 협력자 되기를 거부한 벤허를 메살라는 반역죄로 몰아 캘리선의 노예로 내 보내고, 그의 어머니와 자매는 투옥된다. 캘리선에서 해적과의 전투 중 함대 사령관의 생명을 구출함으로써 결국 그의 양자가 된다. 노예에서 권세가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전차경기에 참가하여 그를 이기지만, 메살라가 죽자 그의 증오심은 다시 로마제국을 향한다. 벤허는 나병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려 예수를 찾아 가지만, 그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다. 천둥번개가 치는 폭풍우 가운데 모이는 나병이 감쪽같이 살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벤허도 드디어 증오와 복수심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기를 경험한다. Lew Wallace 는 부와 명예와 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 놓을 때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뱀허를 통해 보여주었다.

*회원 근황: 최연일 장로 1 월 19 일부터 2 월 9 일까지 3 주간 Florida 휴가를 가집니다.

***2 월:** 권복태 장로의 중보기도후 간증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도 pot 에 넣고 끓이고 끓이면 마지막 남는 단어는 결국 사랑, 은혜 그리고 감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원천적인 부족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또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아무런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이 세상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긴 구속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3 년 전 목자 없는 양 같은 나를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준 보스톤한인교회의 한 믿음의 선배로 인해 나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처럼 그는 삶으로 믿음이 무엇지를 보여 주었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왔을 뿐아니라 믿는 사람이란 죽음 앞에서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몸으로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난을 통하셔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을 일구어 주시며, 세상과 구별되게 해 주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스톤한인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삶,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본받아 후배들에게도 나의 등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과 한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감사가 찬양이 되어 울려 퍼질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회원 근황: 1) 최연일 장로는 휴가중 Covid 로 고생했고, 2) 윤원길 장로가 휴가로 6 월 순서를 4 월의 김형범 장로와 바꾸었고, 3) 권복태, 박영철, 윤원길, 최연일 4 분 장로님이 손자녀 8 명을 가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3 월:** 김문소 장로의 중보기도후 간증은 <저의 기념적인 날들과 일들 다섯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4.19 로 1960 년 4.19 는 민주화를 외치는 4.19 혁명, 국가적 기념일이니, 저의 4.19 들은 1969년 4.19는 보건대학원 동기 김계숙과 결혼한 날이고, 1976년 4.19는 Tewksbury Animal Hospital 을 개업한 날로 40 년 임상을 잘 마친 날이고, 금년은 저희 결혼 55 주년입니다. 둘째는

1984 년 송구영신 예배로 계속 수의사 면허시험에 떨어질 때 제게 찾아오신 성령님 체험의 날이고, 세째는 1984 년 Valentine's Day 에 당시 10 살된 딸이 준 유행찐런 성냥갑을 받고 10 여년 on & off 하던 금연을 확실히 실천한 날이고, 네번째로 한집에서 40 여년 살면서 싸인 가구 정리와 특히 책 정리로 구세군에 가구는 계속 가져다 주지만 여러 책장에 가득한 세계문학전집, 세계미술인전집, 이광수 전집 등등 수백권의 책들을 주고 오면서 가슴 허전하고 텅빈느낌, 끝으로 사진자서전 쓰기를 2023 년 6 개월간 한글로 쓰고, 영어세대 자녀들을 위해 ChatGPT 도움으로 영역을 마쳐 지금 출판중 이라고 간증했습니다.

*회원 근황: 권복태 장로는 4 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다음 모임은 불참합니다.

*4 월: 간증하실 장로님이 개인 사정으로 4 월에서 5 월로 변경되어 5 월 모임은 없음.

*5 월: 윤원길 장로의 중보기도 후 간증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글에 포로귀환 후에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으로 부활이 나타난다.(겔 37:11-14) 개인적인 부활도 제안되었다. (이사야 26:15) 신약시대에는 바리새파 유대인은 몸의 부활을 믿었으나 사두개인은 부활을 거부했다. (모세 5 경에 부활 이야기가 없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여러번 말씀하셨다. 오순절 후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부활이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전 15 장같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근본이 된다. 죽음 자체가 삼켜져서 우리가 승리한다.(고전 15:54)

*회원 근황: 최연일 장로님이 6 월 3 일에 Prostate 수술을 받은 후 두달간 medical leave 로 조준호 장로님이 중보기도자 updates 를 맡겠습니다.

*6 월: 박영철 장로의 중보기도후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몸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coded message 로 우리 몸안에 있는데 그중에 functional unit (e.g. enzyme 을 만드는 DNA sequence) 을 생명과학에서는 gene, 유전자 라고 부릅니다. 이 message 는 하나님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영원하며 행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몸을 만들었고 우리몸의 세포들은 평균 7 ~ 10 년 사이에 replace 되며 white blood cell 은 약 13 일 마다 replace 됩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항상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백혈구는 virus, bacteria 와 같은 이물질과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하루 생산량이 100 billion 정도이고

수명은 약 13 일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빠르게 백혈구를 생산하여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

*회원 근황: 지난주 악성전립선종 제거수술을 받은 최연일 장로님과 5 일전 신장결석 수술을 받은 조준호 장로님 두분께 감사드리고, 4 월 곽일두 교우, 5 월에 신좌경 권사와 주정대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7 월과 8 월** 두달 휴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 월:** 김형범 장로의 중보기도후 간증은 ‘성경’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 우리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어로는 Bible 또는 Holy Bible, 신약은 New Testament, 구약은 Old Testament 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다. 동양 3 국은 그 관습과 전통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성경’, 일본은 ‘성서’라고 한다. 중국도 유교 서적 보다 더 종교적인 불교서는 대부분 경이라고 부른다. 한국도 불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라 이른다. 공동번역은 성서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다. Biblical Study 는 성서학, Bible Study 는 성경공부라고 번역하는 것은 ‘성경’을 비하한다. 봉숭아학당, 성서학당은 초기에 정식 학교가 아닌 이화학당, 배재학당이라 불렸던 씩씩한 옛일을 되새기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라고 인식하여 꼭 ‘성경’이라 써야 한다.

*회원 근황: 6 월 최연일 장로는 악성 전립선종 제거 수술과 조준호 장로는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을 받았고, 7 월에 조준호 장로는 한국 방문, 박영철 장로는 슬로바니아, 사라예보, 모로코 여행을 했습니다. 8 월에 김정선 장로, 9 월에 박기춘 권사 두분이 소천받으셨습니다.

***10 월:** 권복태 장로의 중보기도후 <삶과 죽음> 죽음은 무엇이며 삶은 무엇이고 이들의 연관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로서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하며, 그렇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공자님은 “삶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는 거꾸로 “삶을 알게되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다. 결국,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므로 우리는 잘 살아냄으로 잘 죽어야 한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며, 삶은 고통이며 고난의 연속이다. 죽음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인류보편의 인간사이고 Why me? 가 아니고 Me too! 로서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우리는 친한 친구에게 “자넌 어떻게 죽고 싶나?”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는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수시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를 따른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이므로 예수님 처럼 궁극적 죽음을 두려워않고 영생을 맛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므로 예수님 처럼 사망의 쏘는 것을 이길 수 있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좋은 삶은 이 땅에 살 동안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회원 근황: (1) 9 월 12 일 김문소 장로가 김성빈 장로와 통화해 은장회 복귀를 권유했으나 귀가 안들려 힘들다고 사양함, (2) 조준호 장로는 10 월 현재 한국 방문중, (3) 최연일 장로는 10 월 13 일 부터 1 주간 NY 행 딸도 방문함, (4) 권복태 장로는 10 월 27 일 교회 탁구시합 광고 (5) 박영철 장로는 11 월 한달간 유럽과 아프리카를 여행합니다.

*부청 김우식/김승현 가정의 아기 김은하 (Stella)가 중증 복합 면역결핍 이라는 희귀한 질환 진단이 나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위한 전교안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11 월** 간증은 최연일 장로가 1960s Counterculture 와 Woodstock Festival 주제로 했는데, 이 반문화 운동은 London, New York, San Francisco 등지에서 태동하여 북미에서 유럽으로 파급된 광범위한 사회운동이다. 기존의 관습과 전통적 권위를 배척하고 Peace, Love, Social Justice 혹은 Revolution 을 지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Lifestyle 들이 등장한다: Artistic Expressions, Recreational Drugs, Communal Living, Political Protests 등등.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힘입어, 대학생들도 Vietnam War, Racial Injustice, Women's Rights, Gay Rights, Sexual Freedom 등으로 Protest 를 지속한다. 이 때 주목받은 Hippie Lifestyle 에 대해 소개한다; 이들은 대개 백인 중산층의 젊은이들로 물질주의에 빠진 부모세대에 반발하여 머리를 길게 기르고 샌들을 신고 다니며 꽃 장식을 좋아했다. Flowers 는 당시 Peace and Love 의 상징이었다. 이들은 Communal living, Psychedelic Music, 환각제 사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Rock Music 또한 반문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밴드 Grateful Dead 와 the Beatles (British Invasion)등의 영향력이 컸고, Folk Music 의 Bob Dylan 은 singer-songwriter 이면서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수많은 Music Festival 들이 Counterculture 의 불길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Woodstock Festival 이었다. 1969 년 8 월에 Bethel, NY 에서 40 만명을 열광시킨 행사였다. 이는 1960 년대 반문화 운동의 정점이라 하겠다.

*회원근황: 10 월 18 일 이상구 권사 소천받으셨고, 박영철 장로는 11 월 한달간 유럽과 아프리카 여행중입니다.

***12월** 간증은 조준호 장로가 C. S. Lewis 는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성은 은혜다 라고 했는데, 저는 기독교의 또다른 특성인 **공흠**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공흠이라는 단어가 125 절에 300 번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Henri Nouwen 을 포함한 세명의 공동저자가 집필한 책 <공흠>에 따르면, 공흠은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며,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치유하시는 이러한 공흠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 exclusive 하게 쓰이는 표현이 열두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공흠로 마음이 움직여서”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진정 위대한 신비는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무한한 공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 9 장 13 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여러가지로 정의하는데, 저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흠하심을 입은 죄인들의 모임이란 뜻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공흠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하고, 저희들은 이웃들을 경쟁과 시기, 증오와 편견의 대상으로 보지않고, 공흠의 대상으로 삼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회원근황: 전교인 황동준 집사가 교통사고로 뇌 수술을 받고 치료중에 버지니아에서 소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 www.kcboston.org